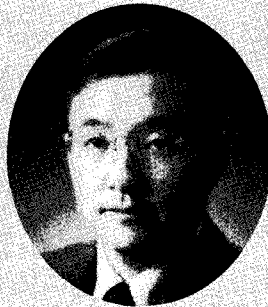




## 첨단 정보화 구축,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

이상용 / 세방기업(주) 대표이사

1965년 창업 이래 37년여 동안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및 중량물설치로 국내 물류사업을 원활히 수행해 온 세방기업(주)이 2002년 물류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인수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세계 각국의 선사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물류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용 사장은 "LME 지정창고의 국내 유치와 외국 LME 지정·창고업체의 국내 진출 유도에 결정적인 역할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벤치마킹 및 컨설팅 수행 등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것이 수상을 영광을 얻게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세방기업(주)은 또한 민자개발 사업에 동참하고 부산항 중앙부두 포장공사를 비롯한 군산항 3.5 부두 곡물창고 신축공사에 적극 참여하기도했으며 최근, 인천항 비산 방지용 곡물창고의 신축공사와 평택항 CFS 신축공사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세방기업(주)은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기업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지난 98년, 99년, 2001년 세차례에 걸쳐 3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2001년에는 항만운영 선진화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일반부두자동화 프로젝트'에 K-L Net과 함께 참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를 도출했다.

이 사장은 "정보화 구축 및 일반부두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해 물류의 흐름에 대한 개별 사안들을 DATA화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물류비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세방기업은 현재 개별업체에 하역에서부터 운송, 보관에 따른 일련의 물류과정을 하주 및 외국적 선사에게 전산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용 사장은 "국가 산업발전의 부담이 되어 온 물류비 절감 및 민자부두의 개발에 일조하기 위해 지난 1999년도와 2000년도

정보화를 이용한 고객만족이 21세기 최고의 경영근간임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한 세방기업(주)이 지금과 같이 높은 정보화 수준으로 발전을 거듭하길 기대해 본다. ko